하나됨과 나눔

“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설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지체들과 고향에 오고가는 가정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 오늘 오후 2시에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조직 구성을 위한 역할 공동체별 모임이 있습니다.
- 젊은이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5일(토)~27일(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디아코니아사랑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4 호
2025년 1월 2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2025년 새해가 밝고, 이제 곧 다가올 음력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설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설은 1월 29일(수)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연휴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25일(토)부터 시작되어, 30일(목)까지 무려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올해 가장 긴 연휴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금요일부터 많은 사람이 귀성 행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력설 연휴는 가족 간의 만남과 함께 정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왔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거나,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명절 기간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동안 무려 210만 명이 해외로 떠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설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보다는 이 시기를 이용해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 명절의 본래 의미가 점차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고, 명절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사실 설 명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이는 단순히 설날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명절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해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시작하기 위한 기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으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고, 새 옷을 입고 세배를 하며 건강과 행복을 서로 빌어줍니다. 세배는 단순히 예의와 존경을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또한, 대보름까지는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이어집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날리기인데, 요즘은 거의 볼 수 없게 된 풍습입니다. 점차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정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설날이 있는데요, '로쉬 하샤나'로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로쉬 하샤나'도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열흘 후에 있을 대 속죄일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로쉬 하샤나'에서 로쉬는 '태초에,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한 해의 첫째 날인데,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으면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 첫째 날의 기준은 바로 '출애굽'할 때가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출발한 설날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설날은 속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때이며, 보다 깊은 의미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죄 씻음을 받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기에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처음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 유대인들의 '로쉬 하샤나'처럼 우리도 한 해를 맞이하며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각자 좋았던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은 단순한 명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아픔이나 실수들을 내려놓고, 새로 주어진 한 해의 기회를 기쁘게 맞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설 명절을 통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

< 창세기 12장 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주 품에, 내 평생 사는 동안 / 내가 주인 삼은
기도 :
성경 : 창세기 22장
제목 : 믿음의 순종과 언약갱신

1. 내용: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다 (What)
   <문단구분>
   1~4절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
   5~10절 이삭의 순종
   11~14절 하나님의 해결책
   15~24절 아브라함의 귀향

2. 의미: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믿음을 드러내신다 (Why)
   1) 믿음의 세계를 이루시는 중 믿음의 절정을 드러내셨다.
   2)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다.
   3) 어려움은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3. 적용: 시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자 (How)
   1)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자.
   2)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고백하자.
   3)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기억하자.

2025년 나의 시간아!
나에게 fan들에게 머물 수 있는 현장을 줄 수 있겠니?

나는 나이 39세에 어린 자녀들을 두고 40세 이후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인도 배낭 여행 3개월을 택했다. 북인도를 돌고 국경을 넘어 네팔 카트만두에서 히말라야까지 등반을 하고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에게 던져진 질문과 답은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무엇을 얻고 왔느냐?

1.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2. 내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3.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고…

20년 세월이 흘러 나에게 주어진 40년 이후의 삶이 가정을 뛰어넘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2024년 12월 25일 사랑방공동체설립 40주년 기념 '사랑방지' 역사의 현장은

1, 부르심과 응답 10년
2. 터전 마련과 믿음의 역사 10년
3. 성장과 시련 10년
4, 세대 교체와 정체성 확인 10년

위 꼭지 4개 안에서 정리됐다.

작년 환갑을 맞아 나는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한다. 인도행이 아닌, 나의 fan들에게 머물 수 있는 현장으로. 세대를 관통하고 전통과 일치된 비전의 결승점을 향해 치닫기를 희망하면서 'K-이음' 브랜드를 만들고 FUN하지만 뻔하지 않은 'JOY JEONG' 20년 인생이면 좋겠다. 내 나이 80까지 가지기、키우기、배우기、만들기、만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선물로 주는 나머지 시간에 욕심을 내어본다면 이어서 80에 쓰는 고백 한 페이지 주어지면 좋겠고, 나아가 100세까지의 꿈 하나 적어볼 수 있는, fan들에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다.

새싹사랑방 정영옥 집사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마태복음 5 : 3-10	인도자
*예배의 찬송	1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531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창세기 12 : 1-3	설교자
성가대 찬양	410 디아코니아사랑방	
설 교	" 복중의 복,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28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10(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나송주 이윤희 / 봉헌위원 : 나송주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복중의 복,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2a>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2b>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3> 내용의 중심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입니다.

그리스도인,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 자체이며,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손자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복을, 증손자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후손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설연휴 기간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며 설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며 복중의 복을 기원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형편을 잘 아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 '베델의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예표'의 복을 기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어람 집사

6년을 마무리하는 6학년 인터뷰

Q. 자신의 멋쟁이학교 생활을 단 하나로 정리한다면?

김지우 : 감사

이은빈 : Realize의 연속인 것 같다. '깨닫다. 실행하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가며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내면을 다듬을 수 있었다. 또 깨우친 것들을 흡수하여 실행함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었기에 점점 더 안정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이안 : 모형 틀. 내 모습을 점점 잡아주었다.

진시우 : '일기장'. 행복했던 힘들었던 모든 추억들을 담아놓은 소중한 일기장이라고 생각한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서로 동거동락하며 성장했던 이야기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생각한다.

화진의 : 축복.

Q. 자신이 생각하는 멋쟁이학교란 무엇인가요?

김지우 : 또 다른 공동체. 가족과 같은 느낌이다.

이은빈 : 가장 친한 친구같은 존재이다. 가끔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나의 안식처가 되고 언제 봐도 한결같은 모습이 인상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또 이 안에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고 가장 편안하고 나 다울 수 있는 곳이기에 나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한다.

정이안 : 고향이요.

진시우 :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신앙 안에서 좋은 관계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

화진의 : 가족.

Q. 서로에게 서로는 어떤 존재인가요?

김지우 : 나의 약점도 보여줄 수 있는 존재.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은빈 : 마냥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 별 얘기를 안 해도 편안하기만 한 그런 존재이다.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뭐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이해가 안되는 모습들도 물론 있지만 결국엔 내가 마냥 좋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정이안 : 가족 형제들, 같은 방을 써도 괜찮은 사람들.

진시우 : 가족 같은 존재이다. 정말 서로를 아껴하고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

화진의 : 가족.

Q. 자신의 1학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김지우 : 성격이 가장 많이 변했다. 사람도 필요 없고 외로움은 지금도 잘 안타긴 그런가? 아니 그래도 친구들은 필요할 것 같다.

이은빈 : 1학년 때는 항상 주변에 연연했고 힘들어하며 나를 보살피지 않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주는 사랑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정이안 :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다. 그 중 능력치가 가장 많이 바뀌었는데, 성격도 좀 바뀌었다. 베테랑이 된 것 같다.

진시우 : 성격. 1학년 때 나는 정~말 내향적이었다. 지금은 외향적인 것 같다.(내 딴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화진의 : 이제 알았으니 친구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숨기지 않을 수 있다.

더 많은 내용은 코이노니아 36호에 있습니다.

요새는 설아랑 노는 재미에 푹 빠졌다

설아는 이제 막 일어서서 한발을 뗀다. 그래서 기어 다니며 노는 데 말귀는 정말 잘 알아듣는다. 할머니의 필요와 요구를 하나씩 알아내기 시작하는 재미도 느끼고, 어떻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도 알아가고 있다. 모든 지시어는 '어', 새로운 것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은 '우와'로 표현하고, 눈을 크게 뜨는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궁금함을 나타내고, 싫어하는 감정은 할머니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놓고, 부정은 도리도리, 긍정은 끄덕끄덕.

어제는 제 아빠가 누웠던 작은 방의 문을 밀며 '아빠, 아빠'를 부른다. 그 방은 침대가 높아서 아이의 키로는 침대 위가 보이지 않아 아빠가 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불러보다가 대답이 없으면 나와 놀다가 다시 들어가 불러보곤 하는 것이다. 몇 번을 그러던 것을 늦게야 알아챘다. 마음이 짠해진다. 그래서 안고 들어가서 침대를 보여주며 '아빠가 나가셨네' 하고 알려 주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그 방에 들어가서 '아빠'를 부르지 않았다.

지난밤에는 설아와 함께 잤다. 아니, 정확히는 '자지 못했다'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

벌써 할머니 침대를 차지해 떡하니 한 가운데 자리를 잡고 누워 있는 아이를 보며, 웃음이 나왔다. 낮엔 어찌 그리 궁금한 게 많은지 방마다 구석구석을 살피고,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지고, 이제는 부엌 가스레인지 밑에 놓아둔 양념들을 뒤집어 보고 싶어 하는 말썽꾸러기인데 잠이든 모습은 정말 작다. 이렇게 작은 머리에서 무슨 생각들이 그렇게 움직이나 싶다. 작은 손의 따뜻함이 목을 간지른다. 조금 있다가는 발이 내 얼굴에 놓인다. 어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울까... 잠이 들지 못해도 아이를 느끼는 이 밤 시간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간지러운 아이는 지금 내게 주신 축복이다. 참 감사한 시간이다.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580장, 288장, 104장
성 경 : 사도행전 22장 11-22절
말 씀 : 믿음의 계기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미국 화재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LA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2주째 진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명의 사상자와 400조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터전이 파괴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새해를 누리며>
* 방모임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소속감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 올해 계획들을 차근차근 잘 실행해가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사회의 안정을 위해
2)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3) 어린이학교 여행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탁한 공기질로 인해 무림리도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었지만, 주 후반에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낮에는 멋진 풍경을, 밤에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관 천정 보수작업을 삼일에 거쳐 하고, 토요일에는 지킴이로 디아코니아 식구들이 구석 구석 깨끗히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공동생활 식구들이 있어 설 명절기간동안 공동체를 지킬 당직도 정하면서 명절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